

고창 학부모들 “디지털·인성교육 절실”

고창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4일 고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형 조화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학부모·교직원들과 교육 현안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공에서 온 한 학부모는 “대체형 인공지능 서비스(챗GPT)를 활용한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전북교육청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챗GPT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등 디지털 교육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줘야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태블릿과 노트북이 보급되지만, 디지털 교육과 아날로그 교육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학교는 아날로그 큰 학교는 디지털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교육을 하는 부모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모교육 이수제’라는 관점에서 교육감께서 엄마와 아빠 모두 참여하는 학부모교육을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학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 선발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원 정수가 줄어들면 기간제 교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기간제 교사를 쉽게 모집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고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년 전부터 디지털 교육을 시작한 곳도 있는데, 우리는 뒤늦게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선생님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간담회’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면서 현장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창조미래(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전북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것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건축사, 교수, 전직 의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6기 시민감사관 1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적감사 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 △2023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협의 △2023년 반부패 추진계획 및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참여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북교육 정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5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성화고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할 것”

서거석 교육감, 특성화고 학교장 간담회서

서거석 교육감은 25일 본청 강당에서 열린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공립과 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립 특성화고 교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특성화고의 발전 방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공·사립 균형 지원은 물론이고 기간제 교사나 전문상담사 모집, 특성화고 교육과정,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면밀히 파악한 만큼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업무 ‘학습의 날’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산업안전보건 업무 ‘학습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업무 ‘학습의 날’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운영되며,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5일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콜로키움 교육동향 분석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내·외 작은 학교 통합 사례’와 ‘교육채무성 제고를 위한 국외 사례 탐색’,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 해외논문 및 기사에서는 ‘뉴질랜드 국가 학업성취 인증제와 관련 이슈를 통한 고교학점제 시사점 모색’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배움과 인재물을 통한 배움의 차이’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내·외 작은 학교 통합 사례’에서는 전북을 포함한 7개 지역(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의 학교 통합 정책 사례를 비교해 봤다. 또한 학교 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외(싱가포르·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어 ‘교육채무성 제고를 위한 국외 사례 탐색’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학업성취 향상 정책인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이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뤘다.

이와 함께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기초학습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2008년 PISA 상위권(읽기·과학 1위, 수학 2위)이었으나 2018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읽기 7위, 과학 6위, 수학 16위) 핀란드의 사례를 두고 열린 토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데이터로 보는 전북’에서는 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반응형 시각화자료 활용과, 전라북도 폐교재산 활용 현황에 대해 안내했다.

끝으로 ‘뉴질랜드 국가 학업성취 인증제와 관련 이슈를 통한 고교학점제 시사점 모색’에서는 뉴질랜드 자격청(NZQA)이 Year 11~13 학생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리·운영하고 있는 학점제인 국가 학업성취 인증제(NCEA)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고, 최근 관련 이슈를 통해서 전라북도 고교 학점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냈다. /정은성 기자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원

도교육청, 올해 47개교에... 총 24억 예산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4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능력 함양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학생 중심 실험·탐구 활동이 이뤄지는 미래형 창의융합 수업 공간이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중 640개교가 이미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고, 이 중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완료한 학교는 268개교다.

올해부터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첨단 과학교육 기자재를 구비하는 지능형 과학실 사업 중심으로 변경해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년도 선정 학교는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13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47개교로 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 △교

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한 과학 탐구 공간 △첨단기술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생들이 과학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발표·학습·실험·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가변적·융합적인 유연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VR, IoT센서 기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 도구를 학교 환경 및 수업 목적에 맞게 갖추도록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되면 다양한 과학 현상에 대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실험·탐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탐구·참여 중심의 공간 및 ICT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으로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2023학년도 ‘티칭 헬퍼’ 임명장 수여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5일 ‘2023학년도 티칭 헬퍼(Teaching Helper)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칭 헬퍼는 △정복희(작업치료학과) △남현아(간호학과) △양종산(물리치료학과) △김나영(의식장업경영학과) △윤영삼(K-POP학부) 교수 등 총 5명이다.

티칭 헬퍼는 강의평가 우수교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교수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선발된다.

호원대학교 티칭 헬퍼는 2018학년도부터 해마다 선발해 올해로 5번째다. 강의성 총장은 티칭 헬퍼에게 “호원대만의 특별한 교수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누는 교수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 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명식에 참여한 티칭 헬퍼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긍정적인 교수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2023학년도 티칭 헬퍼는 우리 대학의 우수 교원으로서 교수학습공동체 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강력한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상하농원과 산학 연계 협력 강화

전북대 농생대, 공식 협약... 실무능력 향상 위한 공동 지도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5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에서 고창 상하농원(대표 류영기)과 협약을 갖고 산학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백승우 농생대학장과 류영기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이 열렸다.

상하농원은 매일유업과 고창군이 조성한 체험형 농촌 테마파크로,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소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원으로, 농축산업(1차), 제조업(2차), 서비스업(3차)이 혼합된 6차 산업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농생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향하는 양 기관이 산학연계를 통한 관련 기술 발전과 현장교육 및 인턴십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서다.

이에 전북대 농생대 재학생들이 이곳에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학 공동 지도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숍과 연구, 세미나 시설도 상호 활용하고, 시설 이용료도 할인받는 등의 장려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백승우 학장은 “6차 산업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상하농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관련 실무와 복지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생명 분야 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5일 대학본관 5층에서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센터장 한동승)은 25일 대학본관 5층에서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의제 제안자,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제 수립 및 해법 도출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및 의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된 의제로는 △어르신 맞춤형 의료서비스 △민간간접접시실 활용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방안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지역 청년들의 로컬캐리커리 플랫폼 구축 방안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만들기 △자립 청년 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방안 △지방소멸 대응 빈집 활용 방안 △용담댐 주변 마을 활성화 방안 등 총 20개 의제가 라운드테이블에 올랐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의제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 기관의 지원을 연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정사항을 거한다. 오는 5월 3일에 개최될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핵심의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